

구어 담화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요청 화행 실현 양상 연구

-전화 메시지 남기기 과제를 중심으로

김 지 혜

Abstract

Kim Ji-hye. 2013. 6. 30.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atterns of Request Speech Acts by Korean Learners in Spoken Discourse.** *Bilingual Research* 52, 45-69. There are relatively many researches on request speech acts of the various fields of Korean education, but many of them employed a questionnaire-type discourse completion test for data collection and thus provided no information on how Korean learners actually made request speech acts in a spoken language environment. Although a discourse completion test is useful for examining the patterns and strategies of using polite expressions by many learners according to their social relationships, it is difficult to get an overall picture of how the primary and auxiliary speech acts are performed in request speech acts with such a test. It is also difficult to discuss whether request expressions learned by many learners can be put to immediate use in a spoken language situation with a discourse completion test since it is a writing task in many cases.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how request expressions and strategies learned in the classroom were utilized and whether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expressions and strategie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request by analyzing the materials of learners who performed a task of leaving a message by phon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cking aspects of a discourse completion test suggested in previous discussions. **(Dong-A University)**

【Key words】 Spoken discourse(구어 담화), Request speech act(요청 화행), Speech act strategy(화행 전략), Korean education(한국어 교육), Speaking education(말하기 교육)

1. 들어가기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구어 담화에 나타난 요청 화행 실현 양상을 한국어 화자들과 비교해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요청 화행을 교수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들 중 요청 화행에 관한 연구들은 수적으로 연구물이 많은 편이다.¹⁾ 그런데 요청 화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분석 자료를 수집할 때 설문지 형식의 담화 완성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들이 구어 환경에서 실제로 요청 화행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담화 완성 테스트는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표현 사용 양상이나 전략을 살펴보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담화 완성 테스트들이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단순 응답을 요구하는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어 요청 화행에서 주화행과 보조 화행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는 힘들다. 또한 담화 완성 테스트가 쓰기 과제로 주어진 경우가 많아 학습자들이 학습한 요청 표현들을 구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도 논하기가 어렵다.²⁾

-
- 1) 요청 화행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주화행을 분석 대상으로 한 논의는 많지만 보조 화행을 포함하여 학습자들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 논의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 중 보조 화행에 초점을 둔 논의로는 김은영(2004), 이강순(2007), 수파편 분롱(2007), 장효은(2008), 이지혜(2009), 사와다 히로유키(2011) 등이 있다.
 - 2) 선행 연구들 중 김은영(2004)와 사와다 히로유키(2011)의 논의는 담화 완성 테스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은영(2004)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학습자간의 역할극을 선택하여 이들의 담화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간의 역할극은 역할극의 특성상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대화가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 태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들의 구어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기존의 요청 화행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의 연구들이 요청 화행 표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문법 항목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 공손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공손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에 관한 논의는 많지만 친한 친구 관계에서 요청 화행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와 같은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고 할 때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다방면으로 구축되어 있다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가 한결 용이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담화 완성 테스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화 메시지 남기기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친한 친구 관계에서 요청 화행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는 전화 메시지 남기기 과제가 얼마나 실제적인가와 관련한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과 한국어 화자들이 요청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발화한 구어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주화행과 보조화행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향후 요청 화행 관련 연구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있다고 할 것이다. 사와다 히로유키(2011)은 실제 대화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요청 화행에서 보조 화행의 실현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구어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고급 학습자들의 요청 화행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이 어떠한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

2.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2.1. 자료 수집 및 내용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한국어 학습자 자료는 부산 소재 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 기말 말하기 평가에서 수집된 104명의 학습자 자료³⁾이며, 한국어 화자 자료는 부산의 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9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음 수집된 자료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 내용과 과제별 답변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요청하기 기능 수행 과제 내용

①	일이 생겨서 친구와 영화 보기로 한 약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②	오늘 친구를 데리러 공항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오늘 오는 친구의 마음을 부탁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③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케이크를 사 가야 하는데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케이크를 사 달라는 부탁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④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룸메이트에게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표 2> 문항 당 답변 인원 수

문항 번호		①	②	③	④	합계
한국어 학습자	초급	13명	10명	9명	9명	41명
	중급	16명	19명	15명	13명	63명
한국어 화자		20명	24명	25명	23명	92명

3) 104명의 학습자 중 초급 학습자는 41명, 중급 학습자는 63명이다. 초급 학습자 자료는 2012년 겨울학기 자료이며 중급 학습자 자료는 2011년 겨울학기과 2012년 2학기 자료이다. 학습자 수준은 초급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400시간을 학습한 수준이며 중급의 경우는 600~800시간을 학습한 수준이다.

<표 1>의 문항들은 학습자들에게 말하기 평가 시 무작위로 주어진 것이며, 과제 수행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와 동등한 지위의 친밀도 높은 관계로 설정되었다. 과제의 조건은 한국어 화자들에게도 말하기 평가 상황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주어졌다.

주어진 4가지 과제는 화자가 요청을 할 때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어떤 전략과 표현을 구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과제들이라 하겠다. 약속 취소하기 과제는 청자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아도 되므로 화자가 비교적 부담을 덜 느끼는 과제일 것이다. 케이크 부탁하기는 친구도 어차피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해야 하므로 요청의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서류 부탁하기나 공항에 친구 마중가기는 청자가 화자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움직여야 하고, 또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는 한국어 사용이 서투르거나 한국 생활이 낯설다면 공항까지 가서 친구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화자의 요청 부담이 앞의 두 과제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 자료 분석 방법

화자는 요청 화행을 통해 청자가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소망을 표현한다. 그러나 화자가 요청한 행동이 청자에 의해 수행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청자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에게 요청한 행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발화 전략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발화 전략은 요청 발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 주화행 전략과 핵심 내용을 부차적으로 보충하거나 완화하는 보조 화행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화행에 관한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 장경희(2005)에서 제시된 지시 수행 형식을 분석 틀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장경희(2005)에서는 Jespersen(1924)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지시 수행 형식들

을 화자가 취하는 관점에 따라 화자 관점의 지시 수행 형식, 청자 관점의 지시 수행 형식, 관점 중립의 지시 수행 형식으로 구분하여 각 형식에 따른 전략들을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경희(2005)의 분석 틀은 주화행에서 화자가 요청할 내용에 따라 발화를 어떻게 달리 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 분류를 그대로 따르되 주화행 요청 전략 중 화자 관점의 요청 수행 전략에서 따로 제시된 화자의 소망과 욕구 표명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은 묶어서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보조 화행 전략에 관해서는 보조 화행을 다룬 선행 연구들 중 이강순(2007), 장효은(2008), 이지혜(2009), 사와다 히로유키(2010)에 제시된 보조 화행 전략을 토대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4)

이들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학습자 및 모어 화자들의 요청 화행 전략 유형과 분석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이강순(2007)을 비롯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보조 화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이강순 (2007)	부담 줄이기, 부담주기, 책망하기, 대안 제시하기, 상황 점검하기, 단순 정보 구하기, 언질 주기, 이유 제시하기, 상황 기술하기, 감정에 호소하기, 보상하기
장효은 (2008)	부담의 정도 최소화, 도움 제시, 농담, 거부 가능성 제거, 예비 요청, 단서 달기, 사전 약속 구하기, 이유 제시, 직접적 호소, 자기 비판, 감언, 결과 제시, 보답 약속, 사과 및 감사
이지혜 (2009)	부담 줄이기, 도움 제시, 농담, 부담 주기, 대안 제시하기, 상황 점검하기, 예비 요청, 단서 달기, 사전 약속 구하기, 상황기술하기·이유제시, 직접적 호소하기, 감언, 결과 제시, 보상하기, 공감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
사와다 히로유키 (2011)	부담 줄이기, 부담 주기, 대안 제시하기, 청자 상황 확인하기, 요청 예고, 요청에 대한 이유 제시하기, 화자의 상황 및 정보 제공,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기, 긍정적 결과 제시하기, 청자의 입장에 대한 공감하기, 사과 및 감사, 객관적 근거 제시하기

보조 화행 전략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본고에서 이들 전략 중 청자 상황 확인하기, 청자의 입장에 대한 공감하기, 책망하기 등과 같은 전략은 과제 특성상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면대면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이므로 전화 메시지 남기기 과제에서는 애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표 3> 요청 화행 전략 유형

주화행5)	화자 관점의 요청 수행 전략	화자의 지시 의도 표명	이번에는 네가 가라.
		화자의 소망 및 욕구 표명	이번에는 네가 가길 바란다. 이번에는 네가 갔으면 싶다. 이번에는 네가 갔으면 한다.
		화자의 태도 진술	네가 가면 좋겠어. 네가 가는 게 좋겠어. 네가 가 주면 고맙겠어.
	청자 관점의 요청 수행 전략	수행 의도 확인	이번에는 네가 {갈래?/가지 않겠 니?}
		수행 여건 확인	이번에는 네가 갈 수 없니?
		목표 행동의 적부 판단 확인	이번에는 네가 가면 {안 되니?/안 될까?}
		상대방의 견해 확인	이번에는 네가 가는 게 어떠니?
관점 중립의 요청 수행 전략	·여권을 만드실 분은 3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일은 이 과장이 처리해야 해요. ·3학년은 23일 오전 8시까지 서울역으로 모인다. ·이곳에는 차를 세우지 못함. (앞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상황) 안 보여요.		
보조화행	부담 줄이기, 부담 주기, 대안 제시하기, 상황 점검하기, 예비 요청하기, 이유 제시하기, 감정에 호소하기, 보상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		

- 5) 주화행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장경희(2005)에서는 ‘-(으)르 수 있니?’, ‘-(으)면 되니?’ 등의 긍정의 질문은 요청 화행에서 행동 수행을 유발하는 기능은 거의 없으며 질문 수행의 기능만을 가진다고 보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대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긍정의 질문 또한 요청 화행 전략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표 4> 요청 화행 표현 전략 분석의 예6)

발화 문장	전략 유형	
여보세요.		
친구, 오늘 부탁해야 일이 생겼어.	보조화행	예비요청
어.. 오늘 몽골에서 친구가 온다는데 공항에 갈 수 없어서 니 니한테 한번 도와 줄 수 있 있어?	주화행	청자 중심 수행여건확인
근데 오늘 시험이 있어서 깜빡 했어. 몰라 몰랐어.	보조화행	이유 제시
한번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니한테 일이 생기면 바로 도와줄 테니까 니한테 한번 도와주세요. 진짜 부탁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친구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니 내한테 니밖에 없으니까 니한테 지금 전화했어요.	보조화행	감정 호소
그리고 왔다갔다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오늘 오늘만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조화행	감정 호소

3. 요청 화행 전략 사용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과 한국어 화자들의 전체 담화 자료를 대상으로 주화행 표현 전략과 보조화행 표현 전략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관해 초점을 두고 논의해 볼 것이다.

3.1. 주화행 표현 전략

우선 한국어 학습자들의 전체 담화 자료 분석 결과에서 주화행 표현

- 6) <표 4>에 제시된 학습자 자료는 중급 학습자 자료(여, 몽골)이다. 자료 분석에서 학습자들의 전체 담화에서 주화행과 보조 화행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 주화행과 보조 화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발화한 문장들 중 <표 1>에 제시된 평가 문항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약속을 취소하다, 친구 마중을 가다, 케이크를 사다, 서류를 가져다 주다-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주화행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예시 자료에서 보듯이 한 사람의 발화에서 동일한 보조 화행 전략이 여러 번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빈도수에는 한 번만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전략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어 학습자들의 주화행 표현 전략

	화자 중심 전략	청자 중심 전략	관점 중립 전략
주화행 전략	39명(37.5%)	48명(46.2%)	17명(16.3%)

<표 5>를 보면 주화행에서의 전체적인 발화 전략으로 학습자들은 청자 중심의 전략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 관점에서의 요청 표현인가, 청자 관점에서의 요청 표현인가 하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존중해 주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학습자들이 청자 중심의 전략을 선택한 것은 청자에게 요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발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말하기 과제가 모두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친밀도 또한 높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표 5>는 친한 친구에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청자 중심 전략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동일한 상황을 주고 담화 완성 테스트로 자료를 수집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라 하겠다.⁷⁾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를 구분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 6>에서 보듯이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는 전체 양상과 달리 화자 중심 전략을 사용해서 발화한 학습자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7) 임마누엘(2004)에서는 담화 완성 테스트로 수집한 자료로 학습자들이 사용한 요청 문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친한 친구 관계에서 학습자들은 주로 ‘-아/어 줘’나 ‘-아/어 주세요’ 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청자 중심 전략보다는 화자 중심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 한국어 학습자들의 급별 주화행 표현 전략

	화자 중심 전략	청자 중심 전략	관점 중립 전략
초급 학습자	21명(51.2%)	16명(39%)	4명(9.8%)
중급 학습자	18명(28.6%)	32명(50.8%)	13명(20.6%)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주화행 전략의 이러한 차이는 초급 학습자들이 요청 화행 표현을 학습한 후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요청 내용에 어울리는 표현 전략을 선택해서 발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⁸⁾ 이는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가 과제별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모국어 화자의 전략 사용 양상과 함께 비교해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과제별 주화행 표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초급 학습자들의 주화행 표현 전략

	화자 중심 전략		청자 중심 전략		관점 중립 전략
① 약속 취소하기	3명 23.1%	지시의도표명3	9명 69.2%	수행여건확인2 행동적부판단3 청자견해확인4	1명 7.7%
② 친구 마중 부탁하기	7명 70%	지시의도표명7	2명 20%	수행여건확인1 행동적부판단1	1명 10%
③ 케이크 부탁하기	5명 55.6%	지시의도표명5	3명 33.3%	수행의도확인2 행동적부판단1	1명 11.1%
④ 서류 부탁하기	6명 66.7%	지시의도표명6	2명 22.2%	행동적부판단2	1명 11.1%

8) 해당 교육기관에서 초급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요청 표현들은 ‘-(으)세요’, ‘-아/어 주세요’, ‘-(으)니까요?’, ‘-아/어도 돼요?’, ‘-(으)르 수 있어요?’, ‘-아/어 주시겠어요?’, ‘-(으)면 안 돼요?’ 등으로 화자 중심 전략 표현뿐 아니라 청자 중심 전략 표현도 학습하게 된다. 중급에서 학습하게 되는 표현으로는 ‘-(으)르래요?’와 ‘-왔/였으면 좋겠다’ 등이 있다.

<표 8> 중급 학습자들의 주화행 표현 전략

	화자 중심 전략		청자 중심 전략		관점 중립 전략
① 약속 취소하기	2명 12.5%	지시의도표명2	4명 25%	수행의도확인1 행동적부판단1 청자견해확인2	10명 62.5%
② 친구 마중 부탁하기	5명 26.3%	지시의도표명5	14명 73.7%	수행의도확인4 수행여건확인4 행동적부판단4 청자견해확인2	-
③ 케이크 부탁하기	7명 46.7%	지시의도표명7	6명 40%	수행의도확인1 수행여건확인1 행동적부판단3 청자견해확인1	2명 13.3%
④ 서류 부탁하기	4명 30.8%	지시의도표명4	8명 61.5%	수행의도확인1 수행여건확인2 행동적부판단4 청자견해확인1	1명 7.7%

초급 학습자들과 중급 학습자들의 주화행 표현 전략을 비교해 보면 케이크 부탁하기 과제에서는 초급과 중급 학습자 모두 화자 중심 전략을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친구 마중 부탁하기 과제와 서류 부탁하기 과제에서는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는 화자 중심 전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는 청자 중심 전략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약속 취소하기 과제에서의 전략 사용인데 초급 학습자들에게서는 청자 중심 전략이, 중급 학습자들에게서는 관점 중립 전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자 중심 수행 전략 표현들에서 중급 학습자들이 초급 학습자들에 비해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급 학습자들의 이런 요청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은 모국어 화자들의 주화행 표현 전략 사용과 유사하다. 아래의 <표 9>를 보자.

<표 9> 모국어 화자들의 주화행 표현 전략

	화자 중심 전략		청자 중심 전략		관점 중립 전략
① 약속 취소하기	-		2명 10%	행동적부판단2	18명 90%
② 친구 마중 부탁하기	11명 45.8%	지시의도표명8 화자태도진술3	13명 54.2%	수행여건확인8 행동적부판단5	-
③ 케이크 부탁하기	14명 56%	지시의도표명13 화자태도진술1	11명 44%	수행의도확인1 수행여건확인7 행동적부판단3	-
④ 서류 부탁하기	5명 21.7%	지시의도표명4 화자태도진술1	18명 78.3%	수행의도확인3 수행여건확인10 행동적부판단5	-

<표 9>는 한국어 화자들의 주화행 표현 전략 사용 양상을 정리한 것으로 케이크 부탁하기 과제는 화자 중심 전략이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친구 마중 부탁하기 과제와 서류 부탁하기 과제는 청자 중심 전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속 취소하기 과제에서 한국어 화자들 대부분이 관점 중립 전략을 선택해 <표 8>에서의 중급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 양상이 한국어 학습자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급 학습자들에 비해 중급 학습자들의 주화행 전략이 모국어 화자와 상당히 유사해졌다는 점은 이들이 초급에서 학습한 요청 관련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국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약속 취소하기 과제에서는 대부분 관점 중립 전략을 선택한 한국어 화자들이 다른 과제에서는 관점 중립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화자 중심 전략에서 중급 학습자들의 세부 전략 유형이 명령형의 지시 의도 표명 전략만으로 표현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요청 화행 전략을 교수할 때 교수자가 참고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어 화자들이 관점 중립 전략을 약속 취소하기 과제 이외에 다른 과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요청 내용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부담량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제의 특성상 약속 취소하기와 같은 상황은 상대방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과제들은 요청 내용이 반드시 상대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일지라도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요청 내용을 전달하고 끝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는 친구 마중 부탁하기를 수행한 중급 학습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 관점 중립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들이 나타나 이들이 한국 친구에게 실제로 요청을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자신의 요청 사항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사용을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

요청 내용이 화행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할 때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 화자들과 한국어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 사용 과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요청 내용이 청자에게 수고를 많이 끼쳐야 하는 일이거나 화자에게 중요한 일이면 아무래도 공손성이 더 요구되기 마련이므로 청자 중심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청자 중심 전략 사용 비율을 보면 한국어 화자들은 서류 부탁하기 과제에서, 중급 학습자들은 친구 마중하기 과제에서, 초급 학습자들은 약속 취소하기 과제에서 청자 중심 전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각 그룹에서 공손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과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화자들의 경우 서류 부탁하기 과제는 자신의 요청이 관철되기 위해서 청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과제이며 또한 요청 내용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과제라는 인식 때문에 청자 중심 전략을 가장 많이 선택했을 것이다. 반면 중급 학습자들은 한국에 도착할 친구가 낯선 곳에서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면 반드시 요청 내용을 관철시켜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고, 청자 또한 자신과 같은 외국인임을 고려할 때 마중 부탁하기 과제가 서류 부탁하기 과제에 비해 요청의 부담량이 크므로 청자 중심 전략을 더 많이 선택했

을 것이다.) 이 두 그룹을 놓고 보면 청자 중심 전략 선호 과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했지만 모두 요청의 부담량과 관계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런데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는 앞의 두 그룹과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초급 학습자들에서 청자 중심 전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과제는 약속 취소하기 과제로, 한국어 화자들이나 중급 학습자들 모두 관점 중립 전략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통보하고 끝낸 과제여서 의외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결과는 초급 학습자들이 다른 과제에서는 요청의 부담량과 상관없이 ‘-아/어 주세요’ 형태의 화자 중심 전략을 사용한 것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아직 요청 화행 표현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는 데는 한국어 학습 시 교재에서 접하는 대화 상황들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스스로 한국인 화자와 접할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이유도 존재한다고 본다.

3.2. 보조 화행 표현 전략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화자들이 보조 화행 표현 전략을 과제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인 것이다.

<표 10> 초급 학습자들의 보조 화행 표현 전략

	약속 취소	마중하기	케이크 부탁	서류 부탁
이유 제시하기	11(39.3%)	8(32%)	9(33.3%)	7(29.2%)
감정에 호소하기	1(3.6%)	1(4%)	-	4(16.6%)

9) 한국어 화자들과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과제 중 꼭 관철시켜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나열해 보라고 했을 때 한국어 화자는 서류부탁하기 과제를, 한국어 학습자들은 친구 마중 부탁하기 과제를 가장 높은 순위로 선택하였다.

보상하기	3(10.7%)	4(16%)	3(11.1%)	5(20.8%)
예비 요청하기	-	2(8%)	4(14.9%)	6(25%)
상황 점검하기	1(3.6%)	3(12%)	2(7.4%)	-
사과하기	10(35.7%)	3(12%)	3(11.1%)	1(4.2%)
감사하기	-	4(16%)	6(22.2%)	1(4.2%)
대안 제시하기	2(7.1%)	-	-	-
부담 줄이기	-	-	-	-
부담 주기	-	-	-	-

<표 11> 중급 학습자들의 보조 화행 표현 전략

	약속 취소	마중하기	케이크 부탁	서류 부탁
이유 제시하기	16(35.6%)	19(35.8%)	15(39.5%)	13(35.1%)
감정에 호소하기	2(4.4%)	6(11.3%)	4(10.5%)	5(13.5%)
보상하기	7(15.6%)	7(13.2%)	7(18.4%)	6(16.2%)
예비 요청하기	2(4.4%)	8(15.1%)	4(10.5%)	3(8.1%)
상황 점검하기	3(6.7%)	6(11.3%)	1(2.6%)	3(8.1%)
사과하기	10(22.2%)	2(3.8%)	3(7.9%)	-
감사하기	-	5(9.4%)	1(2.6%)	5(13.5%)
대안 제시하기	5(11.1%)	-	-	-
부담 줄이기	-	-	3(7.9%)	-
부담 주기	-	-	-	2(5.4%)

<표 12> 한국어 화자들의 보조 화행 표현 전략

	약속 취소	마중하기	케이크 부탁	서류 부탁
이유 제시하기	13(28.3%)	23(47.9%)	22(56.4%)	19(44.2%)
감정에 호소하기	-	8(16.7%)	4(10.3%)	4(9.3%)
보상하기	7(15.2%)	2(4.2%)	-	4(9.3%)
예비 요청하기	-	2(4.2%)	-	1(2.3%)
상황 점검하기	-	3(6.3%)	1(2.6%)	3(7%)
사과하기	18(39.1%)	10(20.8%)	5(12.8%)	12(27.9%)
감사하기	-	-	-	-
대안 제시하기	8(17.4%)	-	-	-
부담 줄이기	-	-	7(17.9%)	-
부담 주기	-	-	-	-

<표 10>부터 <표 12>까지를 비교해 살펴보면 세 그룹에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한 보조 화행 표현 전략은 이유 제시하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이유 제시하기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략의 비중에 있어서는 학습자들과 한국어 화자들이 차이를 보인다. 이 전략에서 학습자들의 경우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비해 한국어 화자들은 ‘바빠서’ 혹은 ‘일이 생겨서’처럼 간단하게 언급할 뿐이다. 아래 (1)에 제시된 자료를 비교해 보자.¹⁰⁾

(1) ㄱ. 여보세요? ○○씨, △△예요. 오늘 영화 약속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 다음 주 괜찮아요? 오늘 영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숙제 많이 많이 하고 내일 시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나는 안 했어요. 그래서 볼 수 없어요. ○○씨, 다음 주 같이 영화 볼 거예요. 사랑해요. <초급 학습자(남, 베트남)>

ㄴ. 여보세요? 오늘 영화 보기로 했잖아. 하지만 여자 친구 아파 생겼는데 음 못 같 것 같아. 지금 여자 친구 병원에 가는 길 가고 있어요. 친차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만나고 그 영화 또 볼 거 볼 거예요. 근데 내일 시간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 어때요? 다음 주도 아마 그 영화 볼 수 있어요. 그 영화 볼 수 없으면 다른 영화 보면 어때요? 그러면 표 요약해 요약할 거예요. 표 두 장? 두 장 사면 살 테니까 그냥 다음 주 만나자. <중급 학습자(여, 중국)>

ㄷ. ○○야, 내 △△다. 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만나겠다. 미안.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사께. <한국어 화자(남)>

위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청자에게 자신이 왜 이런 부탁이나 요청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10) 답화 자료를 전사할 때 간투사나 머뭇거림, 휴지, 반복 등이 나타났지만 예문을 제시할 때는 본고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을 생략했음을 밝힌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유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청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과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 화자들은 이유 제시하기 전략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전략을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이해시키려는 의도로까지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유 제시하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담화를 구성하여 자신의 요구 사항을 청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세 그룹의 보조 화행 전략을 비교해 보면 과제의 성격에 따라 대안 제시하거나 부담 줄이기, 부담 주기 전략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표에서 보듯이 초급 학습자들에게서는 부담 줄이기와 부담 주기 전략이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어 화자들에게서는 부담 주기 전략이 나타나지 않았다.¹¹⁾ 대안 제시하기 전략에서도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17, 18)에서처럼 다음 약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약속 취소가 일방적이지 않음을 알리려고 하는 반면 한국어 화자들은 ‘다음에 보자’와 같은 표현으로 간략히 끝내고 말았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보상하기, 예비 요청하기, 상황 점검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 등의 전략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두루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었는데 여기서 한국어 화자들과의 또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기 전략 사용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과제의 특성상 감사하기 전략이 나타나기 어려운 약속 취소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에서 (2)와 같이 담화 끝부분에 감사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11) 케이크 부탁하기 과제에 나타난 부담 줄이기 전략은 케이크를 사 갈 때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을 나중에 화자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실현된 것이고, 서류 부탁하기 과제에 나타난 부담 주기 전략은 화자가 청자에게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특정한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는 내용으로 실현된 것이다.

(2) 친구야, 친구야 나는 일이 좀 부탁해요. 나의 남자 친구 한국에 한국에 올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사 사실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 고 공항에 가는 길 길에 지갑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분 불 범물 범실물 센터 가야 돼요. 나 대신 고향 고향 공항에 갈까요? 부탁해요. 나 남자 친구 한국어 잘 못해서 음 꼭 해 꼭 도와주세요. 어 나는 밥을 사 줄게요. 고마워요. <중급 학습자(여, 중국)>

한국어 학습자들의 담화에 나타난 이러한 전략은 아직 행동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청자가 자신의 요청 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들에게서는 감사하기 전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아래 (3)과 같은 사과하기 전략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야,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 마중을 못 나갈 것 같아. 미안하지만 니가 그 친구 좀 데릴러 나가 줄 수 있을까? 좀 부탁할게. <한국어 화자(여)>

사실 한국어 화자의 사과하기 전략은 (3)에서 보다시피 예비 요청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아래 (4)에서처럼 청자가 이미 자신의 부탁을 수행해 줄 거라고 믿고 수고를 끼쳐 미안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어 화자들과의 차이를 보인다.

(4) 여보세요. ○○인데요. 저 아까 수업이 끝나고 끝나서 가려고 했는데 같이 있는 친구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 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도 지금 없어서 그 친구는 일본 사람이니까 혼자 가면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후에 가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아마 지각할 것 같아요. 그래

서 △△씨가 제 대신에 케이크를 사서 가 가 줄 수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중급 학습자(여, 일본)>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친구에게 요청을 할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 친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조 화행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교수해 줄 필요가 있다.

4. 요청 화행 교수에 반영되어야 할 점

3장의 논의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요청 화행을 수행할 때 초급 단계에서 어색하게 사용했던 전략들이 중급으로 학습 단계가 높아지면서 전략적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 화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략 사용에 있어서는 한국어 화자와 어느 정도 유사해졌다고는 하지만 표현적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어 화자의 요청 담화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아래 <표 13>을 보자.

<표 13>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화자의 주화행 표현

주화행 전략		표현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화자 ¹²⁾
화자 관점	지시의도표명	.아/어 주세요 -(으)세요 -아/어(요)	미안하지만 (좀) -아/어 줘
	화자태도진술	-	(좀) -(으)면 좋겠어
청자 관점	수행여건확인	-(으)ㄹ 수 있어(요)?	(좀) -(으)ㄹ 수 있을까? (좀) -(으)ㄹ 수 있어?
	수행의도확인	-아/어 주시겠어요? -아/어 줄래(요)?	(좀) -아/어 줄래?
	행동적부판단	-아/어도 돼(요)? -(으)면 안 돼(요)?	(좀) -아/어 주면 안 될까?
	청자견해확인	-(으)ㄹ 까요? -는 게 어때(요)? -는 거 괜찮아요?	-

관점 중립	-(으)ㄹ 것 같아(요) -아/어(요) -(으)면 돼요 -아/어야 돼요	-(으)ㄹ 것 같다 -겠다
-------	--	-------------------

한국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한국어 화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말을 사용하여 표현한 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높임형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손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표 13>에서 보듯이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을 사용하여 요청 화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듯 보이지만 주어진 과제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학습자들의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높임형을 사용하는 것은 반말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아닐 것이다.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평소에 자신의 담화에서 요청 대상이 된 친구들과 반말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임형 사용은 학습자들이 친한 친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손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¹²⁾ 그러나 한국어 화자들은 친한 친구 관계에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지시 의도를 표명할 때 사과하기 전략을 예비

12) 한국어 화자 자료는 부산의 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표준어를 구사하지 않는 화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아/어 줘’, ‘-(으)ㄹ 수 있어?’와 같은 형태가 본래 자료에서는 ‘-아/어 도’, ‘-(으)ㄹ 수 있나?’처럼 지역 방언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으나 본고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13) 익명의 심사자 한 분께서는 학습자들이 반말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하셨다. 물론 심사자의 지적대로 요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비대면 상황이고, 또한 말하기 평가라는 심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분석 또한 가능한 것은 <표 4>나 (1ㄴ)에 제시된 한국어 학습자 자료에서처럼 담화의 시작은 반말로 했다가 요청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면서부터 높임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는 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청처럼 사용하여 ‘미안하지만 -아/어 줘’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좀’을 덧붙여 표현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화가 한국어 화자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화자들의 주화행 표현에서 또 다른 차이는 한국어 화자들이 청자 관점 전략에서 ‘-(으)ㄴ 수 있을까?’와 같은 수행 여건 확인과 ‘-아/어 주면 안 될까?’와 같은 행동 적부 판단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에 비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아/어도 돼요?’ 형의 행동 적부 판단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어 화자들은 청자 견해 확인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청자 견해 확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화자 관점 전략에서도 한국어 화자들은 지시 의도 표명 전략 이외에 ‘-(으)면 좋겠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진술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화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교재의 구성이 다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요청 화행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된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요청하기 기능이 대화문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중급에 이르기까지 (5)의 대화 상황 이외에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대화 상황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6)에서처럼 특정 문법을 연습하면서 요청하기 표현들을 익히는 것이 전부였다.

(5)앤디: 소라 씨, 저……

소라: 왜요? 앤디 씨, 말씀하세요.

앤디: 한국어로 이메일을 써야 해요. 이메일을 좀 써 주세요.

소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빠요.

조금 이따가 도와줄게요.

앤디: 고마워요.

(6) ㄱ. 이 책을 빌려 줄 수 있어요?

ㄴ. A: 이 펜 좀 써도 돼요?

B: 네, 쓰세요.

ㄷ. 가방이 무거우니까 좀 들어 주세요.

ㄹ. 길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 숙제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ㅁ. A: 이 책 좀 가은 씨한테 전해 주실래요?

B: 네, 만나면 전해 드릴게요.

따라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는 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사회적 관계에 맞는 요청하기 전략이나 표현을 스스로 익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어 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표현들을 선호하는지에 관해 터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어 화자들이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정 표현과 대화 유형을 찾아내는 일은 한국어 교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요청하기 상황은 자신과 친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유학생과 같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염두에 두고 교재를 구성하거나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유학생들이 친구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에 한국어 화자의 구어 스타일을 반영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한국어 화자에 최대한 가깝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이 연구에서는 전화 메시지 남기기 과제를 수행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친한 친구에게 요청을 할 때 주화행과 보조화행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략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들은 어

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한국어 화자들의 담화 자료를 비교해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이 요청 화행을 수행하게 될 때 교수자가 보완해 주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요청 화행 표현을 구어에서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전략 사용과 담화 구성면에서 볼 때는 한국어 화자와 다소 거리가 있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화자와 같은 구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대화 상황에서의 요청 화행을 분석하여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학습자들이 수행한 과제가 상황별로 다양하지는 못했다는 점, 연구 대상 학습자들 중 고급 학습자들이 빠졌다는 점 등 본고의 연구 자료에도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면대면 상황에서 일어나는 요청 화행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면 청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전략 사용 양상을 더욱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존의 담화 완성 테스트 자료로는 살펴볼 수 없었던 구어적 양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 본고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김은영(2004). 요청 화행의 상호 작용 구조 분석 연구-일본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김혜연(2008). 한국인, 일본인, 일본인 학습자의 요청 화행 전략 비교-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박영순(2007). 『한국어 화용론』, 도서출판 박이정.

- 사와다 히로유키(2011). 한국어 요청 화행 교육 방안 연구, <화법연구> 18, 한국 화법학회, 251~283쪽.
- 수파편 분룽(2007).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요청 화행 연구,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 신동일(2006). 『한국의 영어평가학2: 말하기시험편』, 한국문화사.
- 이강순(2007). 일본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 연구-전략과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 이정덕(2010).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 표현 습득 연구-말레이시아 학습자의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44호, 이중언어학회, 217~246쪽.
- 이지혜(2009).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재요청 화행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 이혜영(2010). 한국어 요청 화행의 적절성에 대한 태국인의 인식과 숙달도, <이중언어학> 제42호, 이중언어학회, 219~241쪽.
- 임마누엘(2004). 한국어 화행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 방안 연구-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 장경희(2005). 국어 지시 화행의 유형과 방법 및 지시 강도, <텍스트 언어학> 1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85~208쪽.
- 장효은(2008). 한국어 지시 화행과 공손성의 상관관계 연구-부탁 화행과 제의 화행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 학위 논문.
- 한상미(2011). 담화 및 화용과 한국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제47호, 이중언어학회, 507~551쪽.
- Blum-Kulka, S. House and Kasper, G.(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 Request and apologies*, Norwood, NJ :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Jespersio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Levinson, S.(1983). *Pragma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지혜(Kim Jihye)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604-714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전화번호: 010-3251-1805
전자우편: kjh8877@dreamwiz.com

접수일자: 2013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6월 9일

게재확정: 2013년 6월 20일